

■ 권중달 교수의 역사칼럼(29)

아조래어실(我朝來語失)

내가 아침에 말실수를 했구나!



권 중 달(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 삼학교전연구소 소장)

사람이 사회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서 일 것이다. 언어는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 도구이어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의사를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다. 언어의 사용, 즉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감정을 긁어 놓기도 하도 반대로 안도하게도 하기 때문에 말은 신중하게 사용하라고 한다.

특히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일수록 말한마디는 무겁기로 천근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말은 많이 듣되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말은 적게 하는 것이 지도자로서 자질이라고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말 한마디의 실수로 부하에게 목이 베인 사람이 많지만 그 중에서 사사명(史思明)의 경우에는 말한 마디 실수로 아들의 수하에게 목이 잘려 죽는 일을 당하였다. 사사명은 당 현종 때에 당(唐)에 반기기를 들고 장안으로 들어가서 황제에 즉위하여 연(燕)의 황제(皇帝)가 된 안록산(安祿山)과 함께 당에 반란을 주도한 사람이다. 안사(安史)의 난으로 불리는 이 사건에서 안록산과 이름을 병칭(並稱)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안록산이 황제에 오른 뒤에 그것에 도취하였다가 그 아들 안경서(安慶緒)에게 죽자, 사사명은 안경서를 죽이고 안록산의 뒤를 이어 연(燕)의 황제가 되었다. 물론 계속하여 당왕조와 군사적 대치를 해야 하는 처지였다.

그래서 그런지 사사명은 엄청난 독재를 했다. 시기하고 잔인하며 조금이라도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무섭게 형벌을 내리고 심지어 족멸(族滅)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런 그에게 장남 사조의(史朝義)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 사조의는 아버지와 달리 겸손하고 부자랑하며 사족들을 아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조의를 좋아하고 따랐다. 보통 이와 같다면 훌륭한 후계자로 볼 수도 있겠지만 사사명은 자신의 성격에 맞지 않아서인지 늘 못마땅하게 생각하였다.

그래서 둘째 아들 사조정(史朝清)을 자기의 근거지인 범양(范陽, 북경시)을 지키고 하남 사조의를 데리고 전투에 나서면서도 항상 불만이었다. 사사명의 군대가 섬성(陝城, 하남성 삼문현시)을 공격할 때였다. 여기서 이기면 바로 동관(瀋關)으로 들어가서 다시 당왕조의 장안을 넘보게 되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선봉에 섰던 사조의가 패배하였다. 사사명을 물러나면서 아들 사조의를 겹쳤이라고 생각하고, 아들 사조의가 “끝내는 나의 대업(大業)을 이루기에는 부족하겠구나!”라고 하면서 군법에 따라서 사조의와 제장(諸將)을 참수하고 하였다.

그리고 사조의에게 명령하여 삼우성(三隅城)이

라는 성을 쌓게 하고 군량(軍糧)을 저축하라고 하면서 하루에 마치도록 하였다. 대단한 강행군을 명령한 것이다. 사조의가 이 무리한 명령을 받고서도 묵묵히 성 쌓는 일은 마치고 아직 흙칠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사사명이 갑자기 현장에 도착하여서는 아직도 작업을 완성하지 못했다고 노하여 욕하였다. 그리고 좌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세워 놓은 채 흙칠 하는 것을 감독하여 이 일을 드디어 마치게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사조의에게는 엄청난 책임이었다.

뿐만 아니라 사사명은 또 말하였다. “섬주(陝州)에서 이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끝내 이 도적놈을 참수하겠다.” 도적놈이란 자기 아들을 말하는 것인가 아들을 죽이겠다는 것이다. 정말 죽이겠다는 것인지, 전투에서 실패한 아들에 대한 불만을 그렇게 표현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역사서에는 그리 기록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사명이 녹교역(鹿橋驛, 하남성 낙녕현)에 있으면서 심복 조장군(曹將軍)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숙위(宿衛)하게 하였다. 사조의는 이때에 일반 여관에 묵고 있었는데, 그의 부장인 낙열(驕悅)과 채문경(蔡文景)이 사조의에게 유세하였다. “저 낙열 등은 왕과 더불어 죽을 날이 얼마 남아 있지 않습니다. 옛날부터 폐위시키고 세우는 일은 있는데, 청컨대 조 장군을 불러서 이를 모의하십시오.” 왕이란 회왕(懷王)으로 책봉 받았던 사조의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죽는다는 말은 사사명이 곧 사조의를 죽인다고 했으니 그때 자신들도 함께 죽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하니 현재 황제인 사사명을 폐위시키고 그 아들 사조의를 황제로 세우겠다는 말이다. 쿠데타 계획을 말한 것이다.

그래도 사조의는 아버지를 폐위시키겠다는 계획에는 선뜻 동의할 수 없었다. 이를 본 낙열 등은 사조의에게 사사명을 폐위시키겠다는 계획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당으로 귀부하겠다고 까지 말하였다. 이들이 당에 귀부한다면 사사의 세력은 더 볼 것도 없이 멀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궁지에 몰린 사조의는 하는 수 없이 자기 아버지 사사명은 놀라게 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하였다.

낙열 등은 이날 저녁에 사사명을 호위하는 조장군을 불러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사조의의 부병(部兵) 300명에게 갑옷을 입혀서 역(驛)으로 가게 하니 사사명을 숙위하는 군사들이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였으나 지휘관인 조 장군은 낙열에게 협박을 받은 터라 낙열 등을 두려워하여 감히 움직이지 못했다. 낙열 등은 군사를 이끌고 들어가서 사사명이 자는 곳에 갔지만 마침 사사명은 죽간(廁間)에 갔기에 바로 찾지 못했다. 좌우에 있는 사람에게 묻고 꾸물대는 사람다면 대답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몇 명을

죽이니, 좌우에 있는 사람이 사사명이 있는 곳을 가리켜 보았다.

사사명은 변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담장을 넘어 서 마구간으로 가서 스스로 말안장을 채우고 이를 타고 달아나려고 하였지만, 낙열의 견인(僕人, 시종)인 주자준(周子俊)이 활로 쏘아 사사명의 어깨를 명중시켜 말에서 떨어뜨리고 드디어 그를 잡았다.

사사명이 물었다. “난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낙열이 말하였다. “회왕(懷王)의 명령을 받들었습니까.” 아들인 사조의의 명령을 받았다는 말이었다. 이 말을 들은 사사명은 “내가 아침에 말을 잘못하여서 의당 여기에 이르러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나를 너무 일찍 죽이는구나! 어찌 내가 장안에서 승리하기를 기다리지 않았는가? 이제 일은 완성되지 않겠구나.” 당나라의 장안을 점령할 계획이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그것이 실패할 것임을 말했다.

낙열 등은 사사명을 유천역(柳泉驛, 하남성 의양현 서쪽 유천진)으로 호송하여 가서 가두고 돌아와서 사조의에게 보고하였다. 사조의는 그 아버지 사사명을 놀래지 않게 하라고 하였지만 그 수하들은 혼란 속에서 사사명을 살려 두면 다른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사명을 죽였다.

물론 이러한 사건들로 인하여 한 때는 장안을 점령하여 황제의 자리에 올랐었던 세력이었던 안사의 난은 끝을 맺어 갔지만 이렇게 실패를 재촉한 것은 허망하게도 말 한마디의 잘못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사명이 정말로 맏아들 사조의를 죽이려고 했는지 아니면 그냥 전투에서 패한 아들에게 화가 나서 한 말인지는 알 길이 없다. 또 설혹 아버지인 사사명이 자기를 죽이려한다고 하여도 아들인 사조의는 아버지를 해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사조의가 죽으면 따라 죽을 수밖에 없는 수하들의 생각은 달랐다. 그래서 낙열 등은 사사명을 먼저 죽인 것이다.

사실 먹고 먹히는 전쟁터에서는 언제 누가 어떻게 공격해 올지 모르는 상황이 연출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서로를 믿는 것이고, 거기에는 말이 중요한 매개 수단이 된다. 사사명이 아들 사조의를 죽일 마음이 없는데, 화가 나서 막말을 했다면 말 한마디의 결과가 너무 심하였다 할 것이고, 설혹 아들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곁으로 죽이겠다고 내 뱉어서 아들의 수하들에게 알려졌다는 사실은 그 스스로 목숨을 재촉한 것이다.

먹고 먹히는 세상은 전쟁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살이가 온통 생존경쟁의 전쟁터이다. 이런 전쟁터에서 비명횡사하지 않으려면 말씨를 골라 써야 하는 것은 필수이다. 좋은 말, 상대를 이해하는 말로 우군(友軍)을 많이 두어야 나의 힘이 커지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에는 막말이 너무 난무하여 정제되어서 나와야 할 뉴스에 하루도 빠짐없이 이러한 막말이 쏟아진다. 그것도 국회의원, 장관이라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라는 것이다.

막말을 당한 사람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면 사조의의 수하인 낙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격하려는 사람이 없겠는가! 혹 보이지 않는 속에서 공격할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사사명이 원래 장안까지 할파시킬 생각이었다고 한 것처럼 ‘원래 나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성공하면 너희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참으로 딱한 사람들이다.

복야공파조부군(僕射公派祖府君) 추향 봉행

안동권씨복야공파종회장 운서(雲瑞) 권기호(權奇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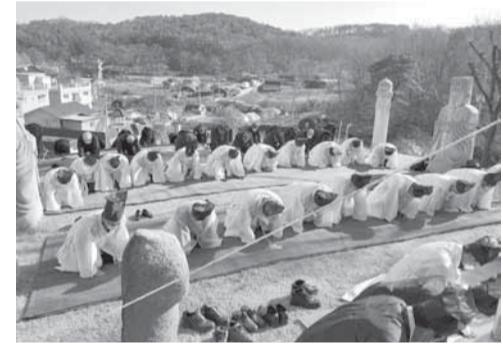
복야공파조부군(僕射公派祖府君) 추향 봉행은 2020년 경자(庚子)년에는 2월부터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대란(大亂)으로 인하여 파종회의 모든 활동이 오랫동안 중단되기도 하였기에 파종회총회도 소집할 수 없어 2020년 7월 15일 종회 관계 안내장을 발송하였으며, 2020년 10월 27일에는 파조추향 편사고유(闕祀告由) 통고문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그 후 파조부군(派祖府君)께 예우를 갖추지 못한 일이라 마음 한구석에 죄책감을 느끼던 차에 11월 초순경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되었다. 이에 용기를 얻어 안동지역에 거주하는 고문과 부회장 몇 분과 협의하여 편사고유로 하지 않고 소수의 참례원으로 예년과 같이 향사(享祀)를 봉행하게 되었다.

향사가 끝난 후 간단한 음복례를 마치고 참례원 전원에게 오찬대(午餐代)를 1만원씩 지급한 후 해산했다. 금년에는 예년과 같이 편안하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환담을 나누는 즐거운 시간도 갖지 못한 아쉬움은 있었으나 추향을 봉행하였음에 흐뭇한 하루가 되기도 하였다.

당일 헌성금은 권기호(회장) 20만원, 사맹공종종(司孟公宗中, 안동), 대구구종친회, 권상목(權相穆, 서울), 권오승(權旼承, 서울) 권기운(權基雲, 안동) 각 10만원, 권갑현(權甲鉉, 영주), 권태광(權泰光, 대구), 권혁창(權赫昌, 대구) 각 5만원으로 합계 85만원이 담겨하였다.

추밀공파 정간공 추향제 봉행



초현관 권병돈 회장, 아현관 권순구, 종현관 권태관(오른쪽부터)

정간공(靖簡公, 휘 희僖, 1319~1405, 15세) 추향제가 11월 23일(월) 10시 30분부터 서울, 경기, 충주(버스 1대), 강원 등의 족친 70여명이 참례한 가운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산 50~35에 위치한 정간공 묘소(고양시 향토문화재 제38호)에서 봉행되었다.

이날 정간공 종종 권병돈 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고유제로 지내는 문종이 많이 있으나 정간공 종회는 정식으로 추향제를 봉행하게 되어 그 의미가 크다고 말하며 엄숙하게 봉행할 것을 주문했다. 초현관에는 권병돈(權炳敦) 회장, 아현관 권순구(權純구), 종현관 권태관(權泰寬), 집례 권오상(權五常), 대축 권오협(忠주)으로 각각 분정하여 봉행하였다. 향사의 모든 절차가 끝나 곧이어 정기총회를 개최하

였다. 정기총회는 권병돈 회장의 개회선언, 국기에 대한 경례, 시조 태사공과 열선조에 대한 묵념, 상설례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권병돈 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향제에 참석해 주신 족친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며 항상 건강하고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일상으로 하루빨리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경과보고에 이어 권영무 감사가 감사보고를 하고, 이어서 재무보고, 예산안 심의, 임원 선출 등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임원 선출에서는 종무위원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추대된 권병돈 현 회장을 만장일치로 주인했다. 감사에는 권오열, 권오협 감사가 새로 임명되었고, 권혁승 감사는 유임되었다. 편집국장 권행완

서울산악회 정기산행 안내 (제311차)

◆ 일 시 : 2020년 12월 20일(일) 오전 10시(시간연수)

◆ 산 행 지 : 춘천 김유정 묘 둘레길(약 2시간 소요)

◆ 집결장소 : 경춘선 상봉역 대합실 출구 앞

◆ 준 비 물 : 간식, 개인 필요 장비 등

◆ 중식제공 : 남춘천역 뒤 우리송어회집(무한리필)

*권영복님께서 고액 상당의 킷을 협찬해 주셨습니다.

회장 권오준 : 010-3718-4204 등반대장(권오윤) : 010-9027-6179
총무 권순희 : 010-3797-1874

2020년 12월 1일

안동권씨서울산악회 회장 권오준

서울마포종친회 월례회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화목·건강·행운이 함께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마포종친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20년 12월 13일(일) 오후 1시
◆ 장 소 : 우가촌(가마솥설렁탕) 02-702-5047, 010-5358-2840
◆ 오시는길 : 지하철5호선 공덕역 5번 출구, 지하철6호선 공덕역 6번 출구→공덕오거리→르네상스타워(옆)→우가촌
◆ 연락처 : 회장 권승구 02-718-8437, 010-6271-8437, 총무 권경탁 010-3796-4047

2020년 12월 1일

안동권씨 마포종친회 회장 권승구

시조 태사공 추향제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00만 족친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임에도 시조 태사공과 낭중공 추향제에 전국 각지에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庚子年 秋享 獻誠金

(2020.11.30奉行)

姓名 및 団體	金額(원)	地域	備 考
副正公派宗會	100,000	永川	會長:權寧度
中允公派宗會	100,000	大邱	會長:權寧鐸
司謹公門中	100,000	安東	僕射公派
權 奇 元	100,000	安東	郎中公 有司
權 奇 菲	100,000	安東	郎中公 有司
權 相 穆	100,000	安東	太師廟 都有司
權 寧 吉	100,000	安東	始祖 燭有司
權 寧 東	100,000	安東	그랜드호텔
權 寧 鐸	100,000	安東	郎中公 獻官
權 五 福	100,000	大邱	郎中公 有司
權 容 基	100,000	大田	炭翁宗 中代表
權 仁 淳	100,000	大田	大田宗親會長
權 宅 衍	100,000	安東	前 安東宗親會長
權 宅 積	100,000	釜山	始祖 所有司
權 赫 根	100,000	慶州	始祖 所有司